

도요다 기이치로의 옛 저택

도요다 자동차 주식회사의 창업자인 도요다 기이치로(1894~1952)가 1933년에 나고야 교외에 별장으로 지었습니다. 3층 구조의 이 건물은 스즈키 데이치(1870~1941)가 설계했으며, 서양과 일본의 건축양식이 융합되어 있습니다. 반지하인 1층 부분은 회반죽으로 덮여있으며 카탈루냐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(1852~1926)의 작품을 연상시킵니다. 2층의 외관은 당시의 전통 일본 가옥과 비슷하고, 3층 부분은 독일풍 하프티머 양식으로 되어있습니다. 내부는 2층이 원목마루로 된 서양식 주방, 거실, 다이닝으로 되어있으며, 3층이 다다미가 깔린 일본식 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. 이 건물은 1년에 한 번, 10 월에만 일반 공개됩니다.

커다란 온실이 특징적인데, 도요다 씨가 꽃을 좋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처음 지었을 때는 주위에 온실이 여러 개 있어서 '미나미야마 농원'이라고 불렸습니다.

도요다 씨는 이 집에서 초기 도요다 자동차의 회의를 진행했고, 1936년에 도쿄로 옮겨갈 때까지는 별장으로 사용했습니다. 이후 결혼한 아들이 들어와 살았습니다. 제 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은 나고야 주변의 주택을 장교 숙소로 징발했습니다. 그러나 미군은 다다미 등 일본적인 요소가 없는 서양식 건축물을 선호했기 때문에 2층의 마루를 다다미로 보호하고 있었던 도요다 가문은 징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.

이 집은 1999년에 복원되어 도요다 구라가이케 기념관 옆에 이설되었습니다. 그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꽃이 피는데, 이 꽃들은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2011년에 심어진 벚나무는 잇따른 자동차 리콜 사태 이후 도요타의 재출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.